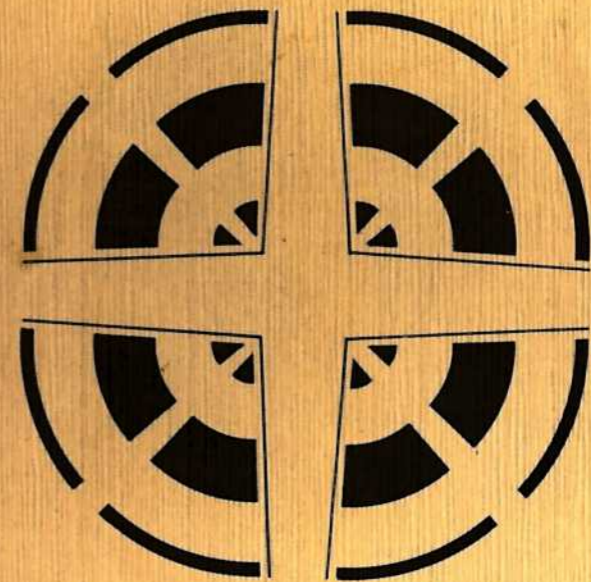


調查分析資料 1982-2

인권정보자료실
CP1.3

군사 정권과 민주화 경험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동 345의98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3668
전화 725-7787, 723-0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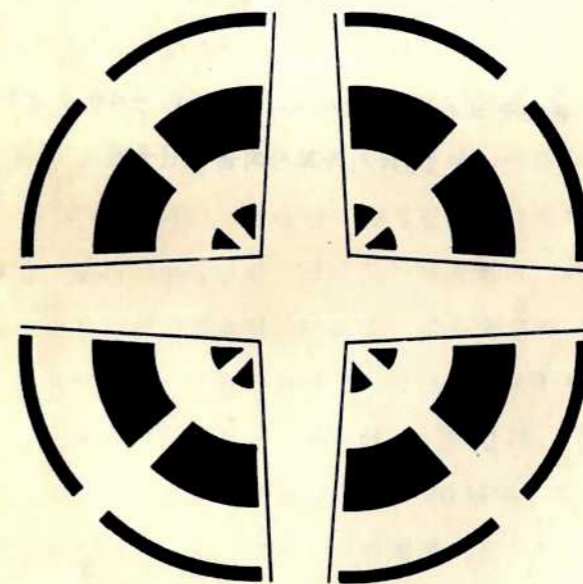
CP1.3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調查分析資料 1982-2

군사 정권과 민주화 경험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본 연구 보고서는

본 원의 자료 회원과 후원 회원들

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 가운데

본 책자를 깊이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 원의 연구 사업을 후원하시는 의미로

약간의 제작비를 부담하시어 성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방법: 대계구좌 546614

전화 (725) 7787

본 연구 보고서는 본 원의 허락없이 전재·복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글머리에

70년대 세계의 움직임을 특징짓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제3세계의 대두였다. 각 분야에서 제3세계 문제가 활발히 거론되는 가운데, 제3세계 경제의 저개발과 증속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제기되고 국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비동맹 세력이라는 독자적인 세력권이 다져졌다.

특히 이제까지 선진 제국의 각종 공업 원료 및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존재해 온 제3세계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자립의 의지와 함께 그 기치를 높이 든 자원 민족주의는 기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 균형에 대해 커다란 교란을 일으키는 요소로 등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까지 선진 제국의 경제적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로 예측되어 온 제3세계의 민중이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고자 외세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의연하게 대결을 선언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제3세계의 대두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억압과 피억압의 갈등 관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면 70년대 각국의 국내 정치를 특징짓는 보편적인 현상은 역시 전세계적으로 드높았던 억압받는 민중의 저항의 물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상은 상호 깊은 관련을 가지며 70년대를 특징짓는다는 점에서 그 맥락이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원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제적 이해 대립에 의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에, 그리고 선진국 상호간에 마찰이 야기되면서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도 내부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추세 하에서 특히 강력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으로 대다수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압살되고 왜곡되어 온 나라에서는 경제적 궁핍과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갈등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 왜곡되고 강요되어 온 평온은 밑으로부터 축적된 엄청난 에너지를 수반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센 물결로 표출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국내외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민주화의 내용과 유형이 구별되는 4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들이 구체제의 모순을 힘겹게 극복하고 또한 국내외의 보수 세력에 끈질기게 대항함으로써 민주화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세력에 밀려 일시적인 역사적 퇴보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사건의 배경과 추이에 따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12월 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 장 조 승 혁

군사 정권과 민주화 경험 / 목차

글머리에 · 3

목 차 · 5

1. 그리스

(1) 키프러스 사태	7
(2) 군사 정권의 성립과 붕괴의 배경	9
(3) 민주화의 진통	14
(4)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망	18

2. 포르투갈

(1) 붉은 카네이션의 혁명	20
(2) 군부 운동과 좌우 대립	24
(3) 민정 이양과 경제 혼란	31
(4) 산적한 난제	35

3. 스페인

(1) 프랑코 체제 하의 반독재 운동	38
(2) 점진과 급진 사이의 곡예	42
(3) 거국 일치의 민주화 작업	46
(4) 프랑코 유제의 청산	49

4. 타일랜드

(1) 10월 학생 혁명	52
(2) 족벌 정치의 배경	55
(3) 민주화의 이상과 현실	58
(4) 반동 세력의 대두	62
(5) 군사 정권의 재등장	65
(6) 쿠데타의 연속	67

맺는말 · 69

참고문헌 · 71

1. 그 리 이 스

- 7년 軍事 政權의 自滅과 民政복귀 -

(1) 키프러스 사태

1974년 7월 15일 키프러스에서, 키프러스의 그리스 합병을 주장해 오던 그리스계 국민군 장교가 주동한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영국군의 도움으로 무사히 키프러스를 탈출한 마카리오스 대통령은 18일 유엔에 도착하여, 키프러스의 쿠데타가 그리스 군사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격렬히 비난하였다.¹⁾ 그가 취해 온 중립적 비동맹 지향의 노선은 “지중해의 카스트로”로 불릴 만큼 잘 알려진 것이었으며 에노시스운동(키프러스의 그리스 합병)을 둘러싸고 그리스 군사정권과도 반목이 심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마카리오스보다는 반란군의 샘프슨 정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뉴

주1) 미국무성은 키프러스의 쿠데타 계획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타스카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쿠데타 저지에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인 사이에서는 군사정권의 키프러스 도발이 미국의 암묵적인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P. Lambropoulos, "Cyprus, NATO & the Greek Future", The Nation (1974.9.28), P.267.

우요오크 타임지」의 보도는 키프러스에서 일어난 터키계 주민 학살 사건의 관련자인 샘프슨이 새 대통령으로 등장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던 터키 정부를 한층 더 자극하는 것이었다. 결국 터키는 자국 주민 보호를 구실로 20일 키프러스에 출병하였다.

그러나 터키의 키프러스 침공에 대응하는 그리스군의 동원 체계는 그동안 집권해 온 군사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리스 최강이라는 제3군 소속 장교 250명은 21일 방송을 통하여 터키군에 군사 개입 중지를 요구하고 기지키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카라만리스 前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민족구출회의'를 구성하여 키프러스 사태를 즉시 해결할 것과 6개월 이내에 자유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군내부의 분열을 깨달은 기지키스는 사태 수습을 위해 63년 이후 파리에 망명중이던 카라만리스 前수상에 국제 전화를 걸어 민간 정부의 구성을 요청하였다. 프랑스 대통령이 제공한 특별기 편으로 급거 귀국한 카라만리스가 24일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함으로써 그리스는 67년 군사혁명 이후 7년 만에 민정으로 복귀하였다. 군부 독재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과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의 급증, 경제성장율의 둔화로 궁지에 몰린 그리스 군사 정권이 국내의 불안 요인을 해외에서 군사적인 모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키프러스 사태는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의 자멸을 가져오고 그리스의 민정 복귀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그리스 군사정권의 무모한 도발로 빚어진 키프러스 사태의 결과로 터키군의 점령 지역은 전체 면적의 18%에서 40%로 확장, 전통적으로 반목 관계에 있던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

조시켰다. 또한 키프러스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1967년 군사혁명 이후 증대되어 온 그리스인의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8월 14일 3당사국간 외상 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터키군이 재침공하여 키프러스 영토의 1/3을 차지할 때까지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무성측의 경고 발언은 매우 의례적이고 미온적이었다. 8월 19일 그리스계 주민의 폭동에서 로저 데이비스 美대사가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비로소 미국의 터키 비난은 격렬한 것으로 바뀌었다. 20여 년 동안 NATO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들어온 그리스인들은 바로 미국계 중장비로 무장한 NATO의 동맹국에게 그리스인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²⁾

(2) 軍事政權의 성립과 붕괴의 배경

1829년 9년 동안에 걸친 터키와의 독립전쟁 끝에 독립 왕국을 세운 그리스는 1924년 국민투표에 의해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나 1925년 게오르기오스 2세의 즉위로 왕정이 부활되었다. 2차 대전 기간 중 나치스를 상대로 한 그리스 유격대의 치열한 反파시즘 투쟁의 용감성은 처어칠은 감탄시켰으며 연합국의 승리에

주2) 터키군은 이 전쟁에서 당시 미국이 NATO 작전용으로 공급한 중장비와 무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Marios Evriviades, "A New Era in Greece", Current History (1981.5), P.218.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리이스는 영국의 식민지처럼 취급되었으며 이들 반파시스트 유격대는 영국군에 의해 어느덧 叛徒로 지목되고 있었다. 1944년 12월경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보내는 비밀 서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들 유격대를 분쇄하고 왕정파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³⁾ 루즈벨트는 국내 여론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이었으며 또한 당시 스탈린도 알타 협상에서 소련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이스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냉담하였다. 결국 유격대는 영국군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1946년 1월 국민투표에서 게오르기오스Ⅱ세의 복위를 결정하였다. 1946년경 북부 지역에서 공산 게릴라의 활동이 격화되었으나 트루만 독트린을 선포하여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미국의 군사 원조에 힘입어 1949년 진압되었다.

왕정파와 공화파의 대립으로 정정이 불안하던 그리이스는 특히 1964년 총선거에서 대승한 중앙동맹의 파판드레우 수상이 국왕과 군부 및 우파 세력과의 알력으로 65년 7월 해임된 이후 短命 내각이 계속됨으로써 정치 위기가 고조되었다. 67년 4월 우파의 카네도플로우스 내각이 의회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하여 국회를 해산하자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 국내 치안은 혼란에 빠졌다. 4월 21일 아침 국왕을 지지하는 군부는 총선거에서 좌파의 진출을 저지하고 육군 참모총장 등에 의한 쿠데타에 성공하여 좌익과 우익에 대해 모두 중립적인 고리아스 검찰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군

주3) Herbert Mitgang, "Looking for Anestis", The Nation, (1978.8.5 ~ 12), P.118.

사정권을 탄생시켰다. 쿠데타의 주역인 스파데이 카키스 참모총장이 부수상 겸 국방상에 취임하고, 다른 각료의 태반이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군사정권은 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前수상, 각료 등 좌우 양파의 정치인 6,000명 이상을 체포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민간단체를 해산하였다.

그리이스가 터키와 함께 NATO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라는 점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서는 이 쿠데타가 "美CIA (중앙정보부)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⁴⁾ 1967년 12월 국왕 콘스탄티노스Ⅱ세의 逆쿠데타가 실패하여 국왕은 로마를 거쳐 런던으로 망명하고 사태 진압에 공이 큰 파파도플로스 대령이 새 수상에 취임하였다.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파파도플로스는 아테네 해병 사관학교를 거쳐 수년간 그리이스 정보부(KYP)와 美CIA간의 연락장교로 근무한 바 있으며 고리아스 밑에서는 관방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리이스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후 스피로 애그뉴, 모리스 스탠스 등과 같은 정부 고위 관리 및 군 고급 장성들의 군부 지지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우호적인 것이었으며 파파도플로스 정권 하에서 미국 기업의 그리이스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훗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64년, 당시의 그리이스 수상 게오르그 파판드레우는 미국측의 유명한 애치슨 계획(Acheson plan)을 거절함으로써 존슨 미국 대통령의 노여움을 크게 샀으며 이후 그의 내각의 와해를 거쳐 1967년 군사 쿠데타

주4) 「賣讀年覽 - 1968」, (日本賣讀新聞社), P.137.

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진행과 이 사실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⁵⁾ 군사정권의 압제와 부패가 거론될 때마다 미국 무성은 “미국과 자유 세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이스의 군사정권을 용인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리이스가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기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이스는 미군 병사들에게 있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휴양처이기도 하였다.

파파도플로스 정권은 6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성장 부음(boom)이 계속되어 그런대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72년경부터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외국 자본의 도피, 관광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황이 심각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유럽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해운업계를 제외한 재계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경제 교류에 관한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EC(유럽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동결되어 있는 은행 차관을 획득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73년 5월 구축함에서 반란이 일어나 함장 이하 31명이 이탈리아로 망명한 사건에, 로마에 망명 중이던 콘스탄티노스 국왕이 관련되어 있다는 핑계로 파파도플로스는 6월 1일 왕정폐지를 발표하고 7월 29일 실시한 국민투표를 거쳐 8월 19일 공화정을 수립했다.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1973년 초부터 EC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던 그는 국내적으로 유화 정책을 시도하여 취임과 함께 정치범 350명을 석방하였으며

주5) P. Lambroponlos, 앞의 글, P. 267.

10월 6일에는 민간인이 포함된 새내각이 들어섰다. 민간에서는 이를 파파도정치(Papadocrasy), 또는 화장한 민주화라고 불려 군사정권의 유화책을 빈정대기도 했다.

73년 11월 14일, 아테네 이공대학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와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데모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노동자, 시민의 호응을 얻어 연 사흘간 데모를 계속하였다. 16일, 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군대가 농성 중이던 2,000여 명의 학생과 충돌하여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날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병원마다 시체와 부상자로 붐비는 가운데 검거 선봉이 계속되어 19일까지 3일 동안에 910명이 체포되었다.⁶⁾ 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 비난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22일에는 반정부 주간지 「정치문제」가 폐간되었다. 24일에는 군대의 습격으로 학생 34명이 사망하고 1,100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파파도플로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 유화 정책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던 헌병 사령관 이오아니데스를 중심으로 군의 극우파는 25일 제2차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CIA의 조작설이 나도는 가운데 무혈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NATO의 지지를 받고 있던 제1군 사령관 기지키스 중장을 대통령에 추대하고 안드루소폴로스를 수상에 취임시켜 태동하고 있던 그리이스 민주화에 계동을 걸었다.

새로운 군사정권의 실력자들은 정치나 경제 운영에 무지하였으며, 반대파에 대한 투옥과 고문은 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대외적인 군사적 모험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NATO로부터의 자립화를 모

주6) 「東亞日報」, 1973년 11월 19~20일자.

색하고 프랑스에 대해 군사적으로 접근하려는 기미를 보여 미국과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정부의 무리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경제성장율은 전년도 12%에서 5%로 떨어졌으며 긴축정책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관광수입도 5% 감소하여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⁷⁾

군내부의 분열도 이미 수습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각국에서는 그리스 군대가 국내 치안 유지에나 동원되는 국내 경찰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대가 키프로스 사태와 같은 비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히 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키프로스 사태로 궁지에 몰린 이오니아테스의 군사정권을 와해로 이끈 것도 바로 그리스 최강의 제3군이었던 것이다.

7년간에 걸친 그리스 군부 독재는 이렇게 누적된 스스로의 모순으로 자멸함으로써 카라만리스의 민정 복귀가 이루어진 것이다.

(3) 민주화의 진통

민정 복귀가 이루어 지던 날, 그리스 전역은 “1944년 나치로부터 해방된 이래 최대의 환희”에 들떠 있었다. 7월 25일

주7) “Greece: Blackness of Spirit”, Newsweek, (1974년 7월 22일자), P. 19.

카라만리스 새 수상은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 진정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26일 카라만리스파를 주축으로 자유주의 진영과 좌익 진영의 인사를 고루 포함한 새 내각이 조직되었다. 새 내각의 각료들은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투옥·연금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아 온 인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민정 복귀에 임하는 그리이스의 모습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쏘그리이스인이 사적인 갈등을 뒤로 미루고 하나로 뭉쳐 외적에 맞서던 1940년의 그리이스를 연상케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질서의 회복을 정부의 최고 정책 목표로 발표한 카라만리스 정권은 組閣과 함께 즉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악명높은 야로스섬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였으며 시민권을 박탈당한 국내외 그리이스인에 대해 복권 조치를 실시하였다. 1967년 쿠데타 이후 채택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는 일체 무효화되었으며 이에 대신하는 “국민이 자유롭게 결정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 조치로서 1952년의 헌법이 부활된다고 선언하였다.⁸⁾ 또한 군정 하에서 금지되었던 정당 활동을 허가하는 한편 공산당을 합법화하였고 계엄령도 철폐하였다.

기지키스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직에 유임되었고 군사정권의 실권자였던 헌병사령관 이오니아테스는 자진 휴직했고 그의 직속 부하들은 지방 부대로 좌천되었다. 새 정부는

주8) 다만 왕정에 관한 조항은 당면 효력이 정지되었다. 木戸⁸⁾, 앞의 글, P. 422.

이미 7월 30일에 내무성의 사무차관과 지사 등 50명의 해임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이밖의 인사 이동은 없었다. 구체제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관대한 것이어서 군정 당시 공직에 있던 민간인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구체제의 원흉에 대한 응징이 정당한 국민적 요구임을 주장하는 좌파의 의견에 대하여 그리이스 새 정부는, “군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있었거나 또는 군사정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모두 응징해야 한다면 절반 이상의 그리이스인이 재판정에 서야 할 것이며 그리이스 전국이 거대한 재판정으로 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답변하였다.

11월 17일 카라만리스 정부는 10년 만에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전에서 카라만리스의 신민주주의당(ND)은 “군사정권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카라만리스가 아니면 안된다”는 광범위한 일반 여론에 쏠점을 맞춰 “카라만리스인가? 탕크인가?”라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다. 키프러스 사태 이후 그리이스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어 온 反美 감정 때문에 對美 관계는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카라만리스는 8월에 벌어진 격렬한 반미 데모의 와중에서 8월 14일 그리이스의 NATO 탈퇴를 선언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그리이스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16일에는 포드 대통령의 訪美 요청을 거절한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에서 보수 진영의 지지표를 노린 우익의 국민민주연맹(EDE)은 對美 협조를 주장하였고 카라만리스의 신민주주의당과 마브로스(64년 당시의 외상)의 중도파연합은 NATO와 미군기지 문제를 앞으로의 협의대상으로 하는 대신 EC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역설하였다. 반면 그리이스 공산당(KKE)의 국내파 및 국외파 그리고 1951

년에 결성된 좌파 민주연합(EDA) 등 공산당 3파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좌파연합(EA)은 NATO에서의 즉각 탈퇴 및 비동맹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파판드레우의 범 그리이스 사회주의운동(PASOK)은 반민 캠페인의 중심이었다.

내정 문제에 관한 선거 쟁점은 군사정권 책임자의 처벌 문제였다. 특히 군정 하의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좌익의 요구가 날로 비등해짐에 따라 처음에는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저하던 정부도 10월에 파파도플러스·마카레조스·파타코스 등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 3명을 게아섬에 구금하는 한편, 최소 34명의 사망자와 2,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73년 11월의 아테네 이공대학 유혈사태의 책임과 함께 반역죄를 적용하여 이오아니데스 헌병사령관에 대한 소추 준비를 개시하였다.⁹⁾

왕실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국민민주연맹이 왕정을 지지하고 카라만리스의 신민주주의당이 태도 표명을 보류하였으며 중도파 연합과 좌익은 이를 반대하였다. 선거 결과는 카라만리스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기타 중도파 연합이 20%, 범 그리이스 사회주의운동이 14%, 좌파연합이 8%를 각각 차지하였다. 군사정권 하에서 투쟁한 주요 반체

주9)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된 파파도플로스 외 3명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에 감형 조치를 내려 많은 물의를 빚었다. 최고형을 받은 것은 이오아니데스로서 그는 종신 징역을 언도받았다. James William Brown, "Greece: Obsessed with the junta", The Nation(1976.3.20), P.334.

계 인사 중에서 의석을 차지한 인물에는 파파도플로스의 암살을 기도했던 파나굴리스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선거 직후인 11월 24일 아테네 이공대학 사건 1주년 기념 데모에 50만 명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함으로써, 그리이스 국민이 11월 선거에서 나타낸 정치 성향은 우파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군부에 대한 혐오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을 입증해 주었다. 12월 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 69.2%의 지지를 받은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75년 6월에는 국회에서 새로운 공화제 헌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리이스는 일단 민주화의 기초작업에 성공하였다.

(4) 그리이스 민주주의의 전망

그리이스 국민이 카라만리스 정권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정권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군사정권에 대한 그리이스인들의 반감은 7년간의 군정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의 하나인 미국의 지지에 대한 깊은 증오감을 남겨 놓았다. 73년 11월에 벌어진 데모에서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은 중요한 구호의 하나였다. 이러한 그리이스 국민의 반미 감정 때문에 연간 30%의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포드 행정부의 경제 원조 제의를 수락하고, EC 가입을 앞당기려 하는 카라만리스 정부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또한 키프

주 10) Time(1974년 2월 2일자), P. 16.

리스 사태 이후 악화되어 온 대 NATO 관계에 있어서도 '범 그리스 사회주의운동을 위시한 야당측의 공세 속에 터키측의 방해 공작까지 계속되어 카라만리스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딜레마에 빠진 카라만리스 정권은 78년 11월까지 예정된 임기 만료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77년 11월에 두차례에 걸친 총선을 실시했다. 총선 결과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80년까지 재차 정권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78년 10월 지방의회 선거에서 좌익이 크게 진출하자 카라만리스는 권력 집중에 의한 정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년 4월 시아시오스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대통령에 출마하였다. 카라만리스가 강력한 대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으로 군림할 것을 우려한 좌익의 반대로 세차례의 투표 끝에 간신히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었다. 이어서 신민주주의당의 새 당수 선출에서는 랄리스 외상이 4표 차로 아베로스 국방상을 누르고 새 내각을 이끌게 되었다. 아베로스가 랄리스에 패배했지만 랄리스 내각이 국방상을 맡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그리이스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과시되기도 했다.

그리이스는 78년 3월 10일 터키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호관계의 회복에 합의한 데 이어 80년 10월 NATO에도 복귀하였다. 또한 카라만리스 정권의 오랜 과제이던 EC 가입도 81년 1월에 이룩됨으로써 그리이스는 서서히 서구적 의회민주주의 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2. 포르투갈

-反 군부에 의한 反독재 혁명-

(1) 붉은 카네이션의 혁명

포르투갈 4월혁명의 상징은 붉은 카네이션이었다. 소총에 붉은 카네이션을 단 혁명군 병사들은 어디에서나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리스본, 오포르토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은 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커피와 따뜻한 식사를 분주히 날라오고 여학생들은 군인들에게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으며 병사들은 이들에게 기념으로 '혁명의 총탄'을 선물하였다.¹¹⁾ 10여 년이 넘게 끝은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에 지친 "4월의 대위들(Captains of April)"이라 불리우는 일단의 청년장교들이 살라자르와 카에타노의 50년에 걸친 외고집 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나 '세계최후의 식민지 제국'을 무너뜨리고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뒤떨어진 조국의 사회 개혁을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의 독재는 1926년 카르보나 장군이 1910년의 10월혁명으로 마누엘 II세 왕을 무너뜨린 포르투갈 공화파를 타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28년 재무상에 취임한 코임브라 대학 경제학

주 11) Antonio de Figueiredo, "Portugal: A country for Historians", The Nation (1975.5.24), P.617.

교수 살라자르 박사는 에스쿠도(포르투갈의 화폐 단위)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1년 만에 수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에 취임하고 1933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軍·교회·地主의 3대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조합국가를 확립하였다. 살라자르 체제는 비밀경찰과 검열제도를 통해 국민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모잠비크·앙골라·기니아·비사우 등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했다. 68년 살라자르가 뇌출혈로 쓰러져 리스본 대학 총장 마르셀로 카에타노가 후계자로 취임하였으나 구태의연하게 살라자르 노선을 답습하였다. 본국에서는 반정부 학생 데모가 계속되고 식민지에서도 게릴라들의 무장 독립투쟁이 격화되어 정세는 계속 불안했다. 1973년에는 리스본에서도 군사 시설 폭파 사건이 속출했고 특히 7월에 모잠비크 원주민 학살 사건이 폭로되어 국제 여론이 비등하였다. 여기에 70년대에 들어와 해외 이민이 늘어나 노동력이 유출되고, 식민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것이 힘들어 졌으며 국가 예산의 50%가 식민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소모되어 포르투갈 경제는 정체 일로를 치닫게 되어 국내 불안 요인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74년 4월 25일 새벽, 「라디오 레나센서」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반전가를 신호로 리스본 동북 80km 지점에 주둔하고 있던 기계화 부대가 진격을 개시하여 「라디오 그루베 포르투게스」 방송국을 점거하여 오전 4시 20분에 군사혁명을 선포하는 제1성을 내보냈다.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접한 포르투갈 국민들이 속속 혁명군 편에 가담하였으므로 출동한 정부군 부대가 개입할 여

지가 없었다.¹²⁾ 이날 오후 5시 30분 카에타노 수상이 한달 전 해임된 前참모차장 스피놀라 장군에게 전권을 이양함으로써 살라자르에서 카에타노로 이어진 48년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렸다.

포르투갈의 4월혁명은 승산없는 식민지 전쟁에 회의를 품은 청년 장교들의 불만에서 직접적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 7월, 포르투갈 국방성은 장기간의 식민지 전쟁에 필요한 장교단의 보충을 위해서 대학 출신 예비 장교들을 정규 장교로 동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전부터 열악한 대우에 불만을 품어온 갈리아 주둔군의 장교들은 이를 계기로 하여 은밀히 반정부 모임을 추진하였으며 집회 금지령을 피하여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잦은 접촉을 가졌다. 동년 9월 대위급을 중심으로 약 200명의 청년 장교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대위운동'을 결성하였다. 상호 접촉이 잦아지면서 이들은 식민지 게릴라들의 혁명사상에 공감을 갖게 되고 점차 단순한 직업적 이익집단적인 성격에서 식민지 정책의 야만성과 카에타노 정권의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청년장교들의 이러한 자각은 수 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포르투갈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했던 일종의 문화혁명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직업 이민을 통해 서구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장기 독재정권 하에서 경직되어 있던 포르투갈 사회에도 서서히 낡은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이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 12) 金七紀男, "ポルトガル軍部クデター", 「國際年報」(日本 國際問題 研究所, 1974)

73년 12월 1일 오비도스에서 모임을 가진 대위운동은 앞으로 쿠데타가 성공하는 경우 이전부터 식민지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온 스피놀라와 고메스 두 장군을 수반으로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계기로 두 장군과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위운동 내부의 좌파 장교들로부터 카에타노와 친분이 깊은 스피놀라 장군에 대하여 강한 반발이 일어났으므로 스피놀라는 74년 2월 2일, 포르투갈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한 「포르투갈과 그 장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반정부적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3월 5일 리스본 교외에서 3군 대표 200여 명이 모여 전군의 동지를 규합하고 대위운동을 군부운동으로 개칭하는 한편 스피놀라를 수반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군부의 이반을 우려한 카에타노 수상은 14일 고메스 참모총장과 스피놀라 참모차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였다. 16일에는 리스본 근교의 카르타스 다 라이니아에 주둔하는 제5보병연대가 리스본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리스본 근처에서 정부군의 저지를 받고 약 200여 명의 장병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져 이미 4월혁명의 전조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운동은 3군 수뇌 7명으로 구성된 구국군사평의회(JSN)를 설치하고 스피놀라 장군을 의장으로 추대하였다. 4월 26일 군사평의회는 행동 강령을 발표하면서, 1년 이내에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그동안 정권을 담당할 임시민간 내각에 병행하여 군사평의회가 존속한다고 발표하고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비밀경찰과 검열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한편 카에타노를 비롯하여 구체제 인사들을 대서양의 마데이라섬으로 추방

하였다.

구체제 하에서 해외망명 중이던 사회당 서기장 마리오 소아레스와 공산당 서기장 알바로 쿤할이 급거 귀국하였고 스피놀라는 29일 구체제 하의 야당 및 좌익 세력과 회담을 갖고 국내 민주화의 추진과 정치활동 자유화를 약속하였다. 5월 1일 반세기 만에 개최된 메이데이 노동절 행사 때는 소포르투갈이 자유의 축제에 들떠 있었고 군인들에 대해 포르투갈 국민이 표시하는 친근감은 실로 국가대표 축구팀의 인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포르투갈의 4월혁명을 재촉한 것이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과 강제 노동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식민지의 흑인들이 조직한 해방군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게릴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주구이던 포르투갈 군대를 자기 국민에 대한 해방자로 변화시켰다.

(2) 군부 운동과 좌우 대립

5월 14일 군사평의회는 임시 헌법을 공포했으며 스피놀라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임시 내각은 소아레스 사회당 서기장을 외상으로, 쿤할 공산당 서기장과 중도 우파의 사 카르네이로 인민민주당 당수 등을 무임소상으로 하는 좌파 거국일치 내각이었다. 그러나 스피놀라는 임시 수상에 보수적인 리스본대학 법학 교수 카를로스를 독자적으로 지명함으로써 군부운동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성향이 다른 좌우익 정당들이 동시에 입각한 것은 경제 문

제와 식민지 처리 문제 등 산적한 난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73년 이후 악화된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은 특히 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에서 서유럽 국가 중 포르투갈만이 유일하게 미국에 협조하여 아조레스 공군기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아랍 산유국의 보복을 받음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74년 혁명 당시의 무역 적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두배, 인플레이션은 30%까지 치솟았고 관광 수입도 30%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¹³⁾ 더우기 혁명과 함께 최저임금제 실시를 요구하는 저임 노동자들의 자발생적 쟁의가 전산업에 번져, 정부는 5월 27일 최저임금제 실시를 발표하였으나 격렬한 노동 공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6월 1일에는 공산당측에서 “파업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파업 중지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사이에 인기가 높던 스피놀라는 이를 배경으로 국내의 혼란과 식민지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우파 반공 세력과 결탁하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를 골자로 하는 카를로스 수상의 임시헌법 초안이 군부와 민간인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평의회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카를로스 내각의 총사직을 초래했다. 차기 수상에는 스피놀라와 군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4월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좌익계의 곤잘베스 대령이 등장하였다.

곤잘베스 내각은 무절제한 노동운동에 대처하여 보안사령부(COPCON) 병력을 출동시키고 8월 27일에 파업 규제법을 공포하였

주 13) Newsweek (1974년 7월 22일자), P.17.

으며 9월 13일에는 發券은행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여 거대한 은행 자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민주화 조치로 인해 곤잘베스와 스피놀라는 다시 반목하기 시작했으며 양자의 대립은 곤잘베스 내각의 기니아·비사우·모잠비크에 대한 독립 승인을 계기로 노골화 되었다.

스피놀라는 원래 매우 우익적인 인물로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를 지원하는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었고 2차대전 중에는 독일군의 레닌그라드 공격에 참가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살라자르 정권의 유능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그의 입장도 한계가 명확한 것이어서 자기 저서인 「포르투갈과 그 장래」에서 “아프리카 식민지가 없다면 포르투갈은 유럽의 한 구석에 박혀 명맥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고 있었다.¹⁴⁾ 스피놀라는 과격파의 전체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군 내부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각 부대를 방문하는 한편 사회민주중양당(CDS) 등 보수적인 우파가 벌이는 反共 캠페인의 지원을 얻어 9월 28일을 기해 리스본에서 전국 규모의 스피놀라 지지 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공산당 포르투갈 민주운동, 노동조합 및 기타 좌익 세력들을 자극하여 이들이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곤잘베스 내각이 집회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스피놀라는 이를 거절하였다. 강경 대처를 결정한 곤잘베스 내각이 9월 28일 새벽에 反혁명 음모에

주 14) Alice Marguis, "Much to do & Little time: Can Portugal make it?", The Nation (1974.9.21), P.236.

관련된 혐의가 있는 보수파 정치인, 군인 등 150명을 체포함으로써 스피놀라는 같은 날 12시 30분에 집회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권력 투쟁에 패배한 스피놀라는 9월 30일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중간적 입장을 견지해 온 고메스 참모총장이 뒤를 이었다. 10월 1일 성립한 2차 곤잘베스 내각에서 스피놀라파는 완전히 배제되어 군부 좌파와 공산당의 승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고메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포르투갈의 좌경화를 염려하는 서방측에 대해 포르투갈이 계속 NATO 가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임을 밝혔다. 10월 18일의 국제연합 총회 연설에서는 최소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추진하여 복수 정당에 의한 정치적 관용의 풍토를 조성하고 식민지 민족의 자결과 독립에 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제 하의 포르투갈에 대해 취해졌던 각종 제약 조치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고메스 대통령과 소아레스 외상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포드 대통령 및 키신저 국무장관과 40분에 걸쳐 요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고메스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에게 포르투갈의 민주화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경제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동석한 키신저는 신내각의 노동상과 국영 통신사 사장에 공산주의자가 임명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소아레스는 구체제 하에서 극도의 탄압을 받은 공산당에 대한 동정적 분위기 때문에 당장 그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후일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들을 배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키신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¹⁵⁾

주 15) Tad Szulc, "Lisbon & Washington", Foreign Policy 75 ~ 76 겨울호. 「世界週報」(1976.2.10), P.48에서 재인용.

한편 11월 7일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무기에 관한 NATO 회의에 포르투갈의 참가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NATO 측은 회의를 연기했다. 키신저 미 국무 장관은 NATO의 최고 군사 기밀이 공산당이 참여하고 있는 포르투갈 정부를 통해 소련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포르투갈 참가에 맹렬히 반대하였다. 당시 포르투갈 군의 고위 관계자는 NATO 사령관 헤이그 장군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대해 “그처럼 도전적인 인물은 일찌기 본 적이 없다”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¹⁶⁾ 그러나 고메스 정부는 회의 참가를 자진 보류함으로써 NATO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나타냈다. 정부는 온건한 사회주의 화를 목표하여 경제 및 사회 부문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국유화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곤잘베스 내각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은 스피놀라 등 군부 보수파가 75년 3월 11일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곧 진압되고 스피놀라는 스페인을 거쳐 브라질로 망명하였다.¹⁷⁾ 이 사건으로 군부운동은 급속도로 좌경화되어 새로 설치된 최고군사혁명평의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간은행과 보험회사를 비롯해 주요 신문과 방송이 국유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본이 엄청나게 유출되기 시작하여 서방 세계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소아레스 사회당 당수도 “포르투갈의

주 16) Stephen Talbot, "What happened to the Captains of April", The Nation (1980.3.2), P.273.

17) 스피놀라는 76년 8월 소아레스를 수상으로 하는 민간정부가 성립된 후 귀국했다.

무역이 미국과 EC제국에 의존하고 있는 판국에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접근을 막고 보복과 고립을 자초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난하였다.¹⁸⁾ 군부운동은 복수정당제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될 경우 구체제의 중산 계층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리라고 판단하였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지한 농민을 계몽하기 위해 군부 자체가 ‘해방운동’을 이끌어 가려 시도했다.

75년 4월 25일, 군부운동이 혁명 당시 공약한대로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고메스 정권은 앞서 74년 10월 21일 선거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제 하에서 일정한 공직에 있었던 자와 기타 파시스트 기관 관련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2개 정당이 참가한 이 선거에서는 소아레스의 사회당 38%, 사카르네이로의 민주대중당 23%, 중도우파의 사회민주중앙당 8%, 공산당 12%의 득표율 분포가 나타났다. 보수적 중산계층과 교회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회당과 민주대중당 등 중도파가 진출하자 군부운동과 불가피하게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우기 경제제도의 개혁 과정을 둘러싸고 군부운동 내부에도 自中之亂이 일어나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었다. 75년 7월 17일 사회당과 민주대중당 소속의 각료들이 군부의 좌경 정책에 반대하여 사임함으로써 곤잘베스 내각은 붕괴하였다. 새로운 곤잘베스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군부운동의 선구자이며 4월혁명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안투네스 장

주 18) Bert Cochran, "A most peculiar revolution", The Nation (1975.10.4), P.296.

군을 비롯한 군부 온건파가 '9인선언'을 발표하여 고메스 대통령 정부가 포르투갈을 東區型 공산국가로 이끌어 가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군사혁명평의회는 이들 9인을 제명시켰으나 전국에서 반공 데모와 좌파에 대한 테러 사건이 격화되어 포르투갈의 좌우 대립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전부터 포르투갈 공산당의 친소 경향¹⁹⁾을 경계하고 있던 미국도 미온적인 스튜아트 내쉬 대사를 카루치로 경질하여, 소아레스를 비롯한 중도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카루치 대사는 후에 CIA 부국장이 된 인물로 1975년 여름에 일어났던 격렬한 反共운동의 배후에 CIA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²⁰⁾ 75년 9월 뉴욕 타임즈紙는 CIA가 매달 포르투갈에 뿌리는 돈이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²¹⁾ 공산당이나 민주화 운동의 거점에 대한 습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반공데모가 격화되어 결국 곤잘베스 수상이 해임되고 9월 19일 아제베도 해군대장이 수상으로 취임하여 안투네스 등을 포함한 온건파 내각이 등장하였다. EC가 포르투갈에 2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포드 행정부도 10월 10일 8,500만 달러의 차관 제공을 발표하였다.

혁명 이후의 포르투갈 정국을 전환시켜 놓은 중대 사건이 11월

주 19) Newsweek (1974년 7월 22일자) 지는 포르투갈 공산당이 모스크바로부터 매달 3,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20) Tad Szulc, 앞의 글, 「世界週報」(1976.1.27) P.61에서 재인용.

주 21) Stephen Talbot, 앞의 글, P.273.

25일 발생하였다. 혁명의 후퇴를 염려하는 극좌파가 온건파 내각의 타도를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고메스를 지지하는 정부군의 출동이 신속했던 데 반해 군중의 호응을 기대했던 좌파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 에아네스 중령 등에 의해 이틀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 결과 군부 좌파의 거점이었던 보안사령부(COPCON)는 해체되고 카르바리요 사령관은 소령으로 강등되었다. 쿠데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공산당의 타격도 큰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좌파가 궤멸된 반면 중도파의 결속이 확고하게 다져졌다. 결과적으로 민간 정부에 대한 군부의 정권 이양을 재촉하게 되었다.

(3) 민정 이양과 경제 혼란

76년 4월 2일 포르투갈 제헌의회는 군사혁명평의회와 여러 정당간의 협의를 거쳐 기안된 사회주의적인 새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끝마쳤다. 새헌법은 계급없는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 노동자에 의한 민주주의,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군부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군사평의회를 통하여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새헌법의 내용은 시아네스 등 군부 온건파와 소아레스가 이끄는 사회당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 카로네이로 역시 이에 마지못해 동의하였으나 아마랄의 보수적 중앙민주당은 반대하였다.

4월 25일에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35%, 대중민주당

이 24%, 공산당이 14%, 중앙민주당이 16%를 차지하였다. 군부의 온건파 안투네스는 군부의 개입을 피하고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립 내각이 불가피하다고 권고하였으나 소아레스는 자신의 반공적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 부르조아 정당의 入閣도 배제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안정한 소수 단독 내각의 성립을 자초하였다.

이어서 6월 27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당, 대중민주당 등의 지지를 받은 에아네스가 당선되었다. 소아레스가 수상에 임명됨으로써 포르투갈은 4월혁명 후 27개월 간의 진통 끝에 비로소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소아레스 내각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아프리카 식민지의 상실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온 100만여 명의 피난민 문제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포르투갈 전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전근대적인 경작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여 농업생산성이 서구에서 최하위였다. 북부지역에서는 대지주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대농장이 발달하였고 남부 지역의 농업 경작은 소지주와 이에 부속된 소작농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곤잘베스 내각은 75년 농업개혁령을 제정하여 4월혁명 이후 농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접수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추인하는 한편 농업 경영을 집단화하는 등, 개혁을 서둘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토지 수용을 지지하는 사회당 좌파에 속하는 신임 농업상 로페스 카로도스가 각 지방의 농업개혁 추진 기관에 자금을 무제한 방출하여 특히 북부 지방에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비난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소아레스는 11월 카로도스를

해임하고 바레토로 교체하였다. 바레토 농업상은 부당하게 수용된 토지를 반환하고 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협동 농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제하였다. 소아레스는 생산성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하여 더 이상의 기업 국유화를 억제하고 국유화된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방법도 검토하였다. 과도기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관 도입 교섭을 벌여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 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에 처한 국제 수지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생산성과 투자의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앙골라, 모잠비크 등 식민지에서 철수하는 피난민 대량 유입은 74년 이후 더욱 악화된 만성적 실업 문제를 악화시켜 소아레스 내각을 괴롭혔다.

소수 여당의 불안정성으로 고민하던 사회당은 77년 7월에 제안된 '신 농지개혁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공산당과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구지주에 허용하는 유보지 증대와 보상금 증액을 규정한 동 법안의 통과에 대해 공산당은 4월혁명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소아레스는 경제 위기와 정국 타개를 위해 11월 30일 의회에 신임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2월 10일 실시한 표결의 결과 공산당을 포함한 전야당의 반대가 판명되어 소아레스는 당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에아네스 대통령은 각 당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28일 소아레스에 再組閣을 요청하였다. 소아레스는 보수적인 북부 지역과 서구 자본가들의 반감을 고려하여 공산당의 入閣을 망설였으나 자신이 '극우파 정당'으로 못박고 있는 중앙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대중민주당의 개

칭)과도 아무런 유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한 달 가량의 협상 끝에 그는 마지못해 그동안 세력을 확장해 놓고 있던 아마랄의 중앙민주당과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받아들였다.²²⁾ 그러나 색채가 각기 다른 양당의 연정은 출발부터 불안한 것이었다. 중앙민주당 각료들은 사회당 정부의 국민의료 사회화 계획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강제로 수용된 토지의 반환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양당의 불화는 78년 7월 소아레스 수상에 대한 신임동의안의 부결로 귀결되어 그의 퇴진을 가져왔다. 이후 다코스타·핀토·핀다시루고 등의 단명 내각이 부침하여 정국 불안이 계속되다가 에아네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9년 12월 2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중앙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포르투갈을 구출한다는 기치 아래 그동안의 반목을 씻고 민주동맹을 구성하였다. 이들 보수파 연합은 '안정된 다수내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간경제 부문의 활성화와 카톨릭 교회에 대한 지위 보장을 약속하였다. 소아레스의 사회당은 공산당과 극우파 정당의 편향성을 극복한 유일한 정당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87.5%가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 포르투갈 국민은 이제 정치에 신물이 났으리라는 국

주 22) 아마랄은 그동안 사회당 내각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인기높은 잘바오 데 멜로 장군을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내외 기자들에게 '과도기의 거국적 화합'을 주장함으로써 에아네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인기를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Anthong Trawick Bouscaren, "The Portuguese Labyrinth, Current History (1981,5), P. 208.

내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선거 결과는 민주동맹 45%, 사회당 27%, 공산당 19%의 득표율을 보여 좌파의 '후퇴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80년 1월 3일 사 카로네이로가 수상에 취임하여 혁명후 최초의 우파 정권이 등장하였다. 또한 안정된 의석을 확보한 사 카로네이로는 새 내각에 한명의 군인도 받아들이지 않아 5년여에 걸친 포르투갈 군부의 정치관여에 종지부를 찍었다.

(4) 산적한 難題

소아레스의 퇴진을 가져온 것은 성과가 부진한 경제정책과 혼란에 빠진 사회 개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포르투갈의 정국안정을 결정짓는 것은 각 정당이나 군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경제의 향방이었다.

북부의 법률가 출신으로 의욕이 대단한 사 카로네이로는 우선 좌파의 농업 노동자들이 토지를 장악하여 협업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알렌테조의 이른바 '붉은 지대 (Red Zone)'를 지주의 私有로 반환시키기 시작했다. 혁명 이후 자산을 몰수당한 지주와 기업가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밝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다. 노동법규를 고쳐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간 은행 및 보험 회사를 지원하였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제3세계와의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군부운동의 비동맹 노선을 지양하고 NATO 및 EC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미수에 그

찼던 극좌파 군부의 1975년 쿠데타 기도 사건 이후 정국의 우
 선회에 따라 젊은 좌파 장교들은 잇달아 체포되었고 모호한 이유
 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좌천되었다. 75년 여름 좌우 대립이
 격심했을 때 노동자·농민에게 1,000여 정의 무기를 배포했다가
 파리로 추방당한 한 대위는 1978년 정부의 사면 분위기에 기대
 를 걸고 자진 귀국하였으나 1년 반 동안 특별한 죄목도 없이 이
 감방 저 감방으로 끌려 다니면서 살라자르 정권의 비밀경찰(PL
 DE) 요원들과 한 방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정신적 고문'
 을 이기지 못한 그는 두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²³⁾ 이들은 사 카로네이로 정부가 좌파 장교들에게도 1979년의
 정치범 사면법(Amnesty Law)을 적용해 줄 것을 캠페인 하고 있
 었다. 좌파 장교가 숙청된 포르투갈 군부는 보다 전통적인 군대
 로 변모하여 군 고위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NATO에 대한 역할
 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 추진된 급진적 개혁을 무효화하려는 사 카
 로네이로의 노력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협업 농장 및 노동조합
 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76년의 사회주의적 헌법에 크게 위
 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 카로네이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했다. "1974년에 파시즘을 타도
 한 것은 6년 뒤에 또 하나의 우익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

주23) Stephen Talbot, "What happened to the Captains of April?", The
 Nation (1980.3.8), PP. 272~273.

이 아니었다"는 좌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80년 10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 카로네이로의 민주동맹이 예상 외의 대승을 거둬서
 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년 11월 4일 사 카로네이로 수상은 민주동맹이 지지하는 카로네
 이로 장군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포르토로 떠나
 던 중 탑승기의 엔진 고장으로 추락사 했다. 사고 3일후인 11
 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중심 인물을 잃은 우파 후보를
 누르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지지를 받는 에아네스 대통령이 재선됨
 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대립이 다시 심각하게 되었다.

4월혁명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 날카로운 좌우 대립이 계
 속되는 가운데 최신형 자동차와 나귀가 끄는 마차가 나란히 달리
 고 인부 10여 명 정도가 일하는 전근대적 작업장 옆에 세계 최
 대의 다국적 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포르투갈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의 해결은 포르투갈 국민에게 부여된 크나큰 과제라 할 수 있다.

3. 스페인

-左右 균형 속의 점진적 民主化-

(1) 프랑코 체제 하의 反독재 운동

스페인에서는 1931년 무혈혁명이 성공해 알폰소 국왕이 스스로 망명하여, 1949년 페르난도 II세 이후 지속되었던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하여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세력은 1936년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에도 인민전선 내각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좌파가 주도하는 인민전선에 반대하는 군부 극우파가 프랑코 장군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켜 스페인은 3년간의 내란에 돌입하였다. 히틀러·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 군에 맞서서 세계 각지에서 의용병이 참전하여 스페인 내란은 국제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00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20만명이 체포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며 인민전선 측이 패배하여 1939년 8월 프랑코 독재정권이 성립되었다.

프랑코는 1947년에 왕위 계승법을 만들어 종신 총통이 되었고 유일한 정당인 팔랑헤당(후의 국민운동) 이외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여 군부·왕당파·카톨릭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1962년에 불법 정당인 기독교민주당, 통일자유민

주당 등이 뮌헨에서 반프랑코 대회를 개최한 직후 국내에 남아있던 당원들이 일제 검거되었고 63년에는 공산당 지도자 그리마우가 처형당하기도 했다. 1931년에 제정된 공화국 헌법은 프랑코의 독재로 사실상 폐지되고 의회조직법(1942년 제정)과 국가 원수 계승법(1947년 제정), 국가조직법(1966년 제정) 등을 기본법으로 채택하여 명목상으로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이유로 서구 제국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오던 프랑코 정권은 2차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성립되면서 서방측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50년대부터 서서히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1953년에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63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스페인 내에 공군기지, 해군기지 4개를 비롯하여 1만여 명의 병력과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었고 그 대신 프랑코 정권에 상당한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양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68년에서 70년에 걸친 비밀 군사 협상에서 스페인은 프랑코 정권의 국제적 위신을 고려하여 군사기지 협정을 상호 방위조약으로 바꾸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의회의 비준에 필요한 2/3선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1972년에 공개된 협상 내용에 따르면 미국측은 “미군이 스페인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외교 문서보다도 프랑코 정권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과시하는 것이다”는 말로 스페인 대표를 안심시키고 있다. 1970년 스페인은 기지 제공의 대가로 미국에서 1억 2,000만 달러의 차관과 2,0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1974년 현

재 스페인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기 구매국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대외적으로 공산권에 대한 접근을 추진하여 1972년 소련과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동독·중공과도 국교를 수립하였다.

스페인 60년대 이후 철강과 조선공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7%를 기록하면서 세계 10위의 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고도의 공업성장과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카타로니아·바스크 지방을 중심으로 분리주의자들의 테러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가 빈발하였으며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이 과격화 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프랑코는 자신의 死後에 대비하여, 1972년 7월 왕정 부활 및 후앙 카를로스 왕자의 왕위 계승을 명문화 한 법령을 공포하고 73년 6월에는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국가 원수와 수상직을 분리하여, 자신의 오른팔인 블랑코 장군을 수상에 기용하였다. 그러나 블랑코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로 폭살되어 74년 1월 아리아스 수상이 대신 기용되었다. 그는 2월에 행한 의회 연설에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약속하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의 인정 등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프랑코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國內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자유화를 추진하는 각료들이 잇달아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개혁이 너무 제한적인 것에 대한 노동자·학생들의 불만은 특히 이웃 포르투갈의 4월혁명 이후 전국적인 데모로 확산되었다. 74년 7월 30일 공산당과 사회당 등 비합법적인 지하 조직이 '스페인 민주평의회'를 결성하고 언론의 자유와 軍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반정부 활동을 강화하였다.

1975년 6월에는 사회당 우파와 기독교민주당 등 중도 좌파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공동 강령'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복수정당제를 갖춘 민주주의적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의 실시와 소수 민족에 대한 자치권 인정 등의 당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전직 각료들이 포함된 체제 내 개혁파도 75년 7월 정치단체를 조직하여 프랑코 독재 정권을 비난하고 조속한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였다. 군 내부에서도 내전에 참가했던 장군들의 고위직 독점, 고급장교와 대기업의 결합에 의한 부정부패 등에 불만을 품은 대위·소령급의 장교들이 74년 '민주군인연맹(UMD)'을 조직하고 정치범 석방과 제헌의회 선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1975년 2월 18일 바르셀로나 주둔 제4군 소속의 장교 2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하여 25명의 장교가 육군대신과 4군 사령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군의 임무는 국민을 수호함에 있는 것이지 국내 치안 유지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일까지 생겨 이후 반역죄를 적용시켜 체제에 비판적인 장교들을 잇달아 체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스크 지방의 분리운동 단체인 '조국과 자유(ETA)'와 좌파 도시게릴라 '반파시스트 애국혁명전선(FRAP)'의 테러도 한층 격렬해져 정부는 1975년 8월 27일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5명의 과격파 게릴라에 대해 내외의 비난을 무시하면서 1975년 9월 27일 총살형 집행을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같은 해 10월 6일 스페인과 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점진적 자유화를 둘러싸고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프랑코는 75년 7월 정맥염으로 입원하여 9월 2일까지 일시적으로 후양 카를로스 왕자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를 이양하였다. 10월 16일 프랑코가 다시 독감으로 쓰러졌다가 심장 발작·내장출혈 등이 병발하여 11월 20일 死去함으로써 '鐵의 지배'로 불린 36년의 독재는 막을 내렸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의 모든 적을 용서하며 나도 그들에게 용서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2) 漸進과 急進 사이의 곡예

1975년 10월 30일 임시 국가원수에 취임하였던 후양카를로스 왕자가 11월 25일 스페인 국왕에 취임하였다. 그는 즉위 연설에서 "국민 전원의 참가에 의한 자유롭고 온전한 사회"를 강조하여, 점진적 자유화의 뜻을 밝혔다. 국왕에 의해 유임된 아리아스 수상은 1976년 1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코르테즈 '스페인 의회'를 양원제 민선 의회로 개혁하고 공산당과 무정부주의자를 제외한 정당 및 결사의 구성을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상이 약속한 민주화 조치 가운데는 의원 선출을 보통선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정당 자유화에 대해서도 '국민운동'과 뜻을 같이 하는 기존 단체는 관대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는 극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스페인 민주평의회'를 비롯하여 민주화를 기대하는 서방 각국의 비난이 빗발쳤다. 또 프랑코 사망 당시 2,000명에 달했던 정치범 중 석방된 자는 극히 일부에 불

과하였다. 더우기 수상은 연설 가운데서 공산당에 대하여는 테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군사법정을 존속시킨다고 못박았다. 영국의 「가디언」紙는 "공산당의 비합법화는 필연적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지하 활동을 하게 만들 것이므로 공산당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라고 논평했다.²⁴⁾ 또 프랑코 총통의 미망인에 대한 연금 증액에 반대한 바 있는 코르테즈 내의 개혁파 피델 카라사 의원도 "수상의 시계바늘은 20년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이다"라고 혹평하였다.

실제로 40년의 독재체제로 가꾸어진 스페인의 정치풍토가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우기 1936년의 내란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스페인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군대 경찰의 지원을 받는 초보수파의 반발로 전국이 다시 한번 내란에 휩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진보적인 개혁파와 보수적인 프랑코파 사이에서 카를로스 국왕과 아리아스 수상은 조심스런 점진적 개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를로스 국왕은 코르테즈 의장에 온건보수파인 페르난데스 부수상을 임명하고 아리아스 수상의 내각도 중도우파적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범 석방에 있어서도 초보수파에 대한 자극을 피하여 석방 규모를 대폭 제한하면서도 대부분 거물급을 골라 석방함으로써 좌파에 대한 선전 효과를 노렸다.

주 24) 有賀忍, "民主化に若惱するスペイン", 「世界週報」, (1976.2.17), P.18.

그러나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는 민주화 과정에 대하여 정치범 전원 석방과 완전한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좌익의 데모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빈발하면서 유례없는 규모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맞선 경찰의 진압도 격렬한 것이어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였다.

국왕은 좌파의 압력에 굴복하여 1976년 7월 1일 아리아스 수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국민운동' 사무총장인 약관 44세의 수아레즈를 임명하였다. 수아레즈는 민주화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1년 이내(77년 6월 말까지)의 총선거 실시, 정치범 특사 등 주요한 민주화 일정을 밝히는 한편, 정당 활동 금지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37년 만에 정당 자유화의 길을 열었다. 수아레즈는 1976년 9월 10일 민주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직접·비밀·보통 선거에 의한 양원제 의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고 코르테즈를 거쳐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1976년 12월 15일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은 77.4%로 나타났다. 투표자의 94%가 정부의 민주화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일단 카를로스-수아레즈 체제에 민주화의 주도권이 부여되었다. "프랑코가 살아 있다면 그도 반대할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구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프랑코파는 득표율 2.6%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의 합법화가 선행되지 않고 투·개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적 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투표 거부를 호소한 좌익의 입장에서 유권자의 22.6%가 투표를 거부한 사실이 매우 의미있는 것

이었다. 결국 스페인 국민은 프랑코를 거부한 것이지 수아레즈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가장 공업화된 바스크 지방의 경우는 56%가 투표를 거부하였다.

국민투표로 일단 민주화 개혁의 정통성을 확인받은 수아레즈 내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산당의 합법화 문제였다. 인민전선 정부의 붕괴 후 망명 중이던 카리리요 공산당 서기장은 이미 1976년 2월 스페인에 잠입해 들어왔으며, 12월 10일 마드리드의 은신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정면 공격하였다. 그는 또 다음 해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에 공산당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부가 우파로부터 공산당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호된 비난을 받아 궁지에 몰려 1976년 12월 22일 카리리요 서기장과 당간부 8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 정부는 극우파의 경찰서장 2명과 민병대²⁵⁾지휘관 1명을 체포함으로써 좌우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카리리요가 소련 공산당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복수 정당제를 갖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유로 코뮤니즘 창립자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세력이 강한 서구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포르투갈의 여당인 사회당은 "그렇게 멋대로 체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다원적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카리리요가 체포된 다음날 「르 몽드」지는 "스페인 왕국이 확실하게 민주정치를 실시

주 25) 정규군, 경찰과 독립된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 비밀 경찰 부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하려 한다면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합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논평했다.²⁶⁾ 내외의 강경한 비난에 굴복한 스페인 정부는 1976년 12월 30일 카리리요 서기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후 공산당은 사실상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77년 2월 17일에 정식으로 법원에 합법화를 신청하였다. 1977년 3월에는 마드리드에 서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3국 공산당 서기장이 모여 수뇌 회담을 열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12월 선거에서 패배한 후 부쩍 결속을 강화한 우익 진영의 쿠데타 가능성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1976년 11월 2일로 만료되는 의회의 임기를 1년 연장하여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 기능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우파의 책동을 방지하였다. 좌파에서도 세력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가두 데모를 스스로 자제하면서 민간의 소요를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우파의 공세를 우려하여 고민하던 정부도 1977년 4월 9일 공산당을 공인함으로써 공산당은 1939년에 내란이 종결된 이후 38년만에 다시 합법화되었다.

(3) 거국 일치의 민주화 작업

주 26) Babara koeppe, "Spain returns to the Ballot Box", The Nation (1977.2.5), P.135.

수아레즈 정부가 약속한 상하 양원 선거는 1977년 6월 16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인민전선 정부 이후 41년 만의 민주적 총선거였다. 선거 결과를 보면 수아레즈 수상의 '민주중도연합'이 34%의 지지를 받아 29%의 지지를 받은 '사회노동당'을 누르고 제 1당이 되었다. 국내외의 관심거리였던 '공산당'은 하원 제 3당이 되었으나 지지율이 9%로 나타나 양대 정당과의 차이가 현격하였고 네오 프랑코파의 '국민동맹'도 하원 제 4당에 머물러 스페인 정치 대세는 중도파에 기울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1977년 7월 4일 '민주중도연합' 출신 각료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경제 전문가를 포함시킨 수아레즈의 소수 단독 내각이 구성되고 1977년 7월 22일 초대 민선 의회가 소집됨으로써 좌우극예를 벌여온 스페인의 민주화는 최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수아레즈 내각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프랑코 사후에 격렬하게 전개된 좌우 대립의 와중에서 방치되다시피한 경제 문제였다. 수아레즈는 조각과 함께 스페인 통화인 페세타를 20% 평가 절하하였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스페인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주요 야당과 함께 거국적 경제 대책을 논의하였다.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 1977년 10월 25일 수아레즈와 '사회노동당' '공산당' '국민동맹' '인민사회당' 사이에 경제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몽클로아 협정(Moncloa Pacts)'을 성립시키는 데는 카리리요 공산당 서기장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밝혀져 "스페인판 역사적 타협"이라고 불리워 졌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2년 기한의 초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물가와 임금의 상승률을 연 22% 이내로 억제하며 실업자 구제를 위해 재정을 지출

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增稅)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었으며 이 후 스페인 경제는 상당한 회복을 보였다.

수아레즈 신정권의 또 하나의 난제는 카타로니아·바스크 등 동북부 지방의 소수 민족들이 요구하는 자치권 문제였다. 원래 이들 지방은 스페인과 인종·문화를 달리하여 내란 이전의 공화국 정부도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전 후 프랑코는 이 지방 주민들이 내전 기간 중 공화파를 지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치권을 박탈하고 학교와 신문에서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금지하였다. 수아레즈는 각 지방의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 아래 우선 1977년 9월 카타로니아 지방 주민의 망명 정부와 국내 각 정당, 스페인 정부 사이에 잠정 협정이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40년 만에 카타로니아 자치정부가 다시 수립되었다. 이에 자극된 각 지방에서도 자치권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속출하여 1977년 12월 바스크 지방을 시작으로 갈리샤·아라곤·안달루시아 지방에 차례로 임시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스페인 민주화에 있어서 최종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신헌법 제정을 위해 1977년 8월 헌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어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신헌법 초안은 1978년 5월부터 각 정당 대표들에 들어갔다. 신헌법 초안은 1978년 5월부터 각 정당 대표들에 의해 구성된 하원 헌법위원회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78년 10월 31일 양원의 심의를 모두 통과하였다. 1978년 12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신헌법은 87.8%의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민주화의 마지막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신헌법에는 시민의 권리 보장, 정교(政敎) 분리와 신앙의 자유, 이

혼의 합법화, 사형 폐지 및 고문의 금지, 지방자치권의 확대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프랑코 遺制의 清算

1979년 3월 1일 실시된 신헌법에 입각한 최초의 총선거에서 수아레즈의 '민주중도연합'이 35%의 지지를 획득해 다시 제1당이 되었고 '사회노동당' 29%, '공산당' 11%의 득표 분포가 나타났다. 이제 민주화의 기초 작업을 끝낸 스페인에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었다. 수아레즈는 1976년에 등장한 이래 좌우 양파의 움직임에 개혁의 완급을 맞추며 과도기의 스페인을 능란하게 이끌어 왔으나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새 내각의 과제는 그의 마키아벨리적 지도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그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념적 확신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아레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즉흥적 수완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불황에 빠지기 시작한 경제 문제와 완전 자치를 요구하는 바스크 지방 주민의 소요에 대처하는 데 있어 책임있는 각료를 기용하여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 채 권력을 혼자 가진 채 겹겹으로 둘러싼 자문위원의 장막 속에서 전전긍긍하였다.

몽클로아 협정 이후 회복을 보이던 스페인 경제는 79년에 들어서며 침체 국면을 보이기 시작하여 실업율이 12%에 육박하였고 인플레이션은 14.5%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제한적인 자치에 불만

을 품은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1979년 여름의 관광 시즌을 노려 곳곳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해외 관광객이 격감함으로써 관광 수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 문제의 악화가 민주주의의 생존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스페인의 불행은 스페인 민주주의가 소생기에 있을 때 세계 경제가 불황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²⁷⁾ 이러한 경제 침체는 특히 프랑코 잔당에게 60년대 ‘스페인의 기적’으로 떠들어 대던 고도성장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우기 카를로스과 수아레즈 정권이 프랑코 사후 군부의 움직임에 계속 지나치게 관대해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일어났던 군부 내의 크고 작은 움직임은 스페인 민주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것이 결코 못되었다. 공산당 합법화를 둘러싼 군부의 위협을 비롯하여 1978년 11월에는 카르타레나 지방의 민병대 사령관 후안 아타레스 장군이 신헌법이 마르크스주의와 이혼·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는 체포되었으나 곧 복직되었다. 또 1978년 11월 한 민병대 대령의 정부 전복 음모가 발각되었을 때도 그는 다만 7개월의 징역에 처해졌을 뿐 강등 처분 등 군부 내의 지위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1980년 1월에도 정부 전복 음모가 있었으나 이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진 토레스 장군은 오히려 그후 코룬나 지방의 총독으로 재발령을 받았다.

군부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왕의 존재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주 27) Meir Serfaty, "Spanish Democracy: The End of the Transition", Current History (1981.5월호), P.213.

카를로스 국왕은 프랑코 밑에서 육군·해군·공군에 두루 복무하는 동안 젊은 장교들과 개인적 교분을 넓힌 바 있었으며 '고참 장군들에게는 그가 프랑코에 의해 후견을 받아 지명된 정통 왕위 계승자라는 점에서 충성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프랑코 시대의 보수파 장군들을 점차로 예편시키거나 보직을 자주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군부내에 자파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으로 1979년 9월부터 군부의 재편성이 시도되었다. 즉 자동 승진 제도를 없애고 임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부의 쇄신을 꾀하고 민병대와 새로 설치된 국립경찰(이전의 무장 경찰의 개편)을 국방부가 아닌 내무부 관할로 하였다. 특히 1979년 3월 선거 이후에는 처음으로 국방 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군부의 반발은 1981년 2월 23일의 불발 쿠데타로 나타났다. 발렌샤 군관구의 제임프밀랑-보쉬 장군이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이 쿠데타는 놀랍게도 1978년 11월 정부 전복 음모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는 민병대 대령 안토니오 테제로가 주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쿠데타가 발발하자 군부가 즉시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여 이 불발 쿠데타는 오히려 스페인 군부 내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각 정치 세력들에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단결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찌기 과도기의 경제 혼란 속에서 초당적 일념으로 스페인을 구출하였던 '몽클로아 협정'의 소중한 정신에 의해 다시 한번 스페인은 난국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리라는 것이 서구제국들의 기대이다.

4. 타 일 랜 드

—逆進 勢力에 의한 좌절—

(1) 10월 학생 혁명

1973년 10월초 타일랜드의 수도, 방콕에서는 1971년 쿠데타 이후 선포된 임시 헌법에 의해 독재를 유지해온 타놈 군사정권에 반대하여 항구적인 민주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100인 위원회가 정치인·교수·학생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1973년 10월 6일부터 방콕 시내 요소요소에서 제헌 기념일인 1973년 12월 10일까지 항구적인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정부는 이것이 5인 이상의 정치 집회 금지를 규정한 계엄 포고령에 위배된다 하여 이들 중 13명을 체포하였다. 1973년 10월 9일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타마사트 대학에서 집회를 열고 체포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에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집회에 가담하여 규모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구호는 타놈 독재의 비판으로 발전하였다. 11일 프라파트 내상이 타일랜드 전국학생센터(NSCT) 대표와 회견을 가졌으나 정부는 체포된 13명이 공산주의자의 선동에 따라 정부 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석방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NSCT는

집회 장소를 왕궁 광장으로 옮겨 참가자는 5만여 명을 넘어섰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13명의 체포자들도 단식으로 학생들의 집회에 호응하였다. 다음날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13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에 해당하는 벌금형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전국의 대학·직업학교·기술학교·사범학교 등에서 왕궁 광장에 집결한 학생이 15만 명에 육박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그 정도로 학생들의 열기를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이날 정오 NSCT는 24시간 이내 체포자 전원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발표하고, 그 시한인 13일 정오가 되자 다시 국회의사당으로 데모 장소를 옮겼다. 이들은 식량부대·응급처치·연락부대 및 전투부대 등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색의 완장을 두르고 서로를 구별하였다.

학생들의 대집회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성품과 기금이 담지하였다. 이날 밤, 라차탐눈 거리의 민주 기념탑 집회에는 일반 시민까지 합세하여 40만의 인파가 물렸다. 한편 NSCT 대표는 국왕과 프라파트 내상과 차례로 회견을 갖고 체포자의 무조건 석방과 74년 10월까지 헌법을 발표한다는 약속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데모 학생들은 이를 승리로 받아들여 집회를 해산하자는 NSCT측과, 정부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직업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NSCT 전투부대 '황색 호랑이' 그룹으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후자의 과격파 학생들이 왕궁 광장 근처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고 있던 14일 새벽 6시 30분경, 학생과 경찰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에서 여학생 3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 기념탑 근처와 타마사트 대학에 흩

어져 있던 학생들은 다시 격분하기 시작했고 승리를 선언한 NSCT가 지도력을 상실한 마당에서 이들은 성난 군중으로 화하였다.

7시 45분경 타마사트 대학 근처의 파출소가 학생들에 의해 불이 붙는 것을 계기로 관청가와 왕궁 광장으로 통하는 일대는 전장으로 화하였다. 수대의 탱크와 500여 명의 군인이 출동하였으나 학생들은 지지 않고 각목과 몽둥이로 대항하였다. 단지 위협적 시위에 그칠 줄 알았던 출동 군대가 소총과 전차포를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공중에서도 헬리콥터의 총격이 시작되었다. 이 총격으로 학생과 시민 등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오후 3시 30분경 군대가 타마사트 대학을 공격하리라는 정보가 떠돌자 대학 구내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프라야川(메남강)을 건너 도망하였다. 여기서도 강을 건너던 많은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흥분한 학생들은 타놈의 아들 나롱 대령의 본거지인 행정사찰청을 비롯 정부 권력의 상징인 관공서 건물에 방화하기 시작하였고 물려든 인파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한 5시 30분경까지 2시간에 걸친 총격은 라차탐눈 거리를 완전히 피로 물들임으로써 '피의 일요일' 학살은 절정에 달했다. 군대가 철수한 뒤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총사직을 발표했다. 저녁 7시 15분경 부미풀 국왕이 TV에 나와 타놈 정부가 총사직했으며 타마사트 대학 총장인 산야 박사가 새 수상에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산야 총장은 TV를 통해 6개월 이내에 헌법을 발표하고 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방송에 접한 시민·학생들은 승리의 환성을 올렸으나 많은 학생들은 무방비의 학생·시민에 대한 잔학한 공격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었다. 더우기 정부가 총사직했다고 하나 군사정권의 주동인 타놈과 프라파트가 여전히 군 사령관 직과 경찰국장 직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이들의 권력이 완전 박탈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이들 중 '황색 호랑이' 그룹은 소총과 권총 등을 휴대하고 경찰 권력의 상징인 수도권 경찰본부로 물려 들어갔다. 경찰과 학생들간의 난투극은 14일 밤부터 15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이 싸움에서 다시 의사·간호원 등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싸움은 경찰측이 학생들의 방화로 본부 건물을 포기함으로써 끝났다. 이날 오후 5시 타놈·프라파트·나롱 등 군수뇌 3명이 국외로 도피했음이 보도됨으로써 타놈 군사정권의 붕괴가 명백해졌다. 13일부터 시작된 학생 데모는 77명의 사망자와 444명의 행방불명, 기타 수많은 중경상자를 내고 드디어 혁명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2) 족벌 정치의 배경

근대 서구 열강의 아시아 분할 속에서도 타일랜드는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한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독일·영국·프랑스에 이어 일본·미국 등의 물결이 밀려 닥칠 때마다 삼(타이의 옛 이름)의 왕들은 정치의 조류에 현실적·기회주의적으로 적응하면서 18세기 이후 주권을 보전해 왔다. 특히 18세기 중엽, 라마 4세(영화 "왕과 나"에서 올 브린너가 분장) 이후 타이의 開明 군주들은 서구 문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왕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왔다.

1932년 인민당의 무혈쿠데타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이래 타이는 우파군부와 진보적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1947년 피분 육군 원수의 쿠데타 이래 파오·샤리트·타놈·프라파트 등의 군부 지도자들은 국권의 보전을 내세워 헌법을 부정,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였으며 왕은 다만 국권의 상징으로써 이들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58년 쿠데타로 집권한 샤리트에 이어 63년 12월 수상에 오른 타놈 키티카초른은 71년 닉슨의 중공 방문을 둘러싸고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타이 동북부의 공산계릴라의 활동이 격화되자 돌연 11월 17일 치안유지를 내세워 쿠데타를 감행,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미국은 타놈 정권과의 사이에 마찰이 많았지만, 1966년 타이군이 베트남 전선에 군대를 파견한 이래로 더욱 강화된 경제·군사 원조는 동남아시아 전략상의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타놈 정권의 골칫거리는 거만하고 난폭한 플레이보이로 소문난 타놈의 아들 나롱 대령이었다. 나롱은 무기 및 아편 밀매 등의 불미스러운 장사에 관여하는 등으로 비난의 표적이었다. 더우기 관리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사찰청을 통해서 그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그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1973년초 그는 정부고관·장성·기업가들의 파티 모임의 하나로 헬리콥터를 동원, 숲에 숲속의 야생 동물 사냥에 나섰다. 헬리콥터 사냥은 손꼽히는 그의 오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총소사에 학살된 야생동물의 사진이 방콕 신문에 게재되자 이를 계기로 반정부 데모가 확대되기 시작

했다.

10월의 학생운동이 일반 시민까지 동원하여 폭발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전년도에 미곡 생산이 부진하여 일반 국민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하였던 점에 크게 기인한 것이었다. 쌀이 부족하여 식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따라 섬유제품·일상용품 가격이 상승을 계속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969년 팜 독트린 이후 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전반적으로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 타놈정권은 친미 일변도의 외교를 고수함으로써 학생·지식인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다. 그리고 미·중공 접근 후 태일랜드의 대(對) 중공 관계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1972년 12월 공식적으로 대 중공 교섭의 중지를 발표하더니 73년 1월에는 베트남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자 인도지나 전쟁 지원의 총지휘를 맡아온 미국의 지원 활동 그룹을 나롱 파농 기지로 옮김으로써 對美 밀착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73년 8월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을 중지함에 따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고 있던 때에 태일랜드가 이와같이 친미 일변도의 자세를 취한 것은 미군의 전진 기지로서 공산주의 진영과 대치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사정을 배경으로 분위기가 성숙해 온 10월 학생 데모는 10월 14일 나롱 대령의 발표 명령에 의해 혁명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타놈과 나롱, 프라파트가 해외로 망명한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내에 남아있는 이들의 재산 총액은 9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태일랜드 국가 예산의 약 1/3에 상당하는

액수였다고 한다.²⁸⁾

(3) 민주화의 이상과 현실

타놈의 퇴진으로 피분 정권 이래 27년간에 걸친 군사정권이 붕괴되자 타일랜드는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다. 군의 실력자 크리트 육군 사령관은 11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하였다. 학생 단체와 노동자·농민·지식인들이 새로운 정권 하에서 제각기 정견을 내어놓고 신문들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구체제의 정당활동 금지 조치가 풀리고 좌파 정당을 비롯하여 각종 정당·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그러나 산야 정권은 석유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와 구정권 각료의 유임에 대한 학생들의 데모로 난항에 부딪쳐 74년 5월 21일 산야는 사직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유임 요청과 국왕의 요청으로 다시 조각(組閣)에 나선 산야는 소장파로 내각을 재구성하고 강·온 양면 정책으로 임시 체제를 수습, 10월 7일 국민의회를 거쳐 신헌법을 공포하였다.

신헌법에 기초한 최초의 하원 선거는 75년 1월 26일에 실시되었다. 44개 정당이 참가한 이 선거에서 21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였고 이중 12개 당의 의석은 10석 미만이었다. 따라서 내각 구성은 처음부터 압초에 부딪쳤다. 세니 프라마요가 이끄는 전

주28) 田中忠治, “タイ10月學生革命—軍事政權の崩壊”, 「國際年報」(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3), P.245.

통 야당인 민주당만이 1/5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세니는 보수파 및 좌파와의 연립 구성에 잇달아 실패함으로써 쿠크리트 프라마요(세니의 친동생)의 사회행동당이 내각 구성에 나섰다. 극심한 소당 분립은 쿠크리트로 하여금 구(旧) 국민연합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정당과의 연립 내각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학생과 좌파 신문들은 방콕의 기업·금융가들과 밀착되어 있는 이들 구세력이 민주주의보다는 그들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 쿠크리트 연립 내각을 공격하였다. 실제 새 내각의 각료 중에는 도박장 운영이나 무기 밀매 등으로 번 돈을 동원 하였다는 등 선거를 위해서 뿌려진 그들의 돈이 4천만 달러로 추산됨으로써 구세력이 재등장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타일랜드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의회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10월혁명 이후 의회의 공백이 또 다른 군부 책동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우려가 일단은 제거된 셈이었다.

쿠크리트는 수상 취임에 즈음하여 타일랜드의 당면 과제를 “국민들에게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많은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밤에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사실 타일랜드의 정국 안정의 열쇠는 보수파의 준동 그 자체보다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빈부 격차에서 비롯되는 농민 및 대다수의 도시 노동자들의 불만이었다.

주29) Larry Diamond, “Democracy's Race against Time”, The Nation (1975, 5.10.), P.559.

쿠크리트는 전인구의 85%가 속해 있는 농촌 지방의 관개시설 개선 등을 위해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과, 도시 인구 위주의 저미가(低米價)정책 지양 및 중간상인들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약속하였으며 또 행정의 지방 분산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매년 20,000채의 서민 주택 건설을 통해 100,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쿠크리트의 보수성과 오랜 정부 경험은 우파의 견제에 도움이 되었고 한편으로 언론계 시절부터의 정치 경제 개혁론자로서의 리버럴한 이미지는 좌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있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그의 정책을 “교묘한 균형책”이라고 논평하였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쿠크리트의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 야당측은 “불가능한 약속”을 늘어놓는다고 비난하였다. 세니의 그러한 정책수행에는 5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타일랜드 국가 예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신히 10% 수준에 억제해 놓은 타일랜드의 인플레이션을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10월혁명 이래 구심점을 잃은 학생들의 움직임도 일관성을 결하고 있었다. 보다 급진적인 학생들은 농촌으로 흩어져 민주주의 계몽에 몰두하여 토지개혁과 농민 조직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방면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방콕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타마스트 대학의 한 교수는 “학생운동은 일시적인 조

주30) Frank·C·Darling, “Thailand: Return to Military rule” Current History(1976.12), P.198.

적과 시위에는 강하지만 자신들의 조직을 장기적인 운동 체제로 상존(常存)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 지도자들이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외세로부터의 타일랜드의 독립”이라는 문제 뿐이었다. 그들은 미군의 철수와 일본과 대만 및 미국 기업들의 축출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외세로부터 놓여나지 못한다면 타일랜드의 당면 목표는 아무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의 함락과 미국의 패배로 동남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흔들리게 되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쿠크리트 정부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1년 이내에 미군 철수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비동맹 세력을 비롯하여 북경 및 하노이 정부와도 접촉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부의 산림지대에 산재해 있는 공산 게릴라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쿠크리트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은행 및 석유·채광업계, 주요 농산품 수출 회사 등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좌익계 정당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식인·기술관료·언론계로부터 지지를 넓혀가고 있는 신세력당은 스스로 사회주의당임을 자처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토지개혁 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새로운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심각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금력이 난무하는 타이의 정치 풍토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도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경험과 이상을 겸비한 마땅한 정치 세력의 부재야말로 타일랜드의 불행이라고 지적하였다. 타일랜드의 대다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과도기

의 지루한 갈등과 논쟁에 실증을 낸 나머지 강력한 지도자에 향수를 느끼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4) 反動 세력의 대두

쿠크리트 정권이 75년 말에 실시한 쌀값 인상은 학생과 노동자들 사이에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76년 1월초 노동조합연합이 최초의 총파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노동 세력과의 타협으로 노동 불안의 고비를 넘긴 쿠크리트는 1월 8일 개각을 단행하여 내각의 분열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여당의 내부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정국 불안이 고조되었다.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우려한 쿠크리트는 1월 14일 연립 내각의 분열을 이유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거를 요구하였다. 동시에 그는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맡은 내무상의 직책을 겸임, 4월 4일 총선거에서의 안정된 자파 세력의 확보를 겨냥하였다.

39개 정당에서 2,370명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인 선거전은 분열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총선거 진출을 노린 보수계 각당은 전국에서 격렬한 반공 캠페인을 벌이고, 극우파의 '나우옹' 당과 '빨간 들소' 당은 혁신 정당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전개하였으며, 신세력당 중앙당사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또 사회주의자당의 분사농 서기장이 방콕 근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일단의 괴한에게 피격되어 숨짐으로써 사회주의자당은 선거전을 단념해야 했다.

선거전의 최대 초점은 쿠크리트 내각이 3월 20일을 기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군 철수 문제였다. 우파와 군부는 공산화 위협을 강조하여 미군의 잔류를 요구하였으나 학생과 노동자 등 좌파에서는 즉시 완전 철수를 요구하여 좌우 대립이 정점에 달하였다. 특히 73년 혁명 당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기술학교 학생들이 그후 극우파로 선회, 타마스트 학생들과 스트라이크 노동자들의 습격에 앞장서게 된 것을 두고 좌익 학생들은 이를 미 CIA의 장난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1951년 이래 미국은 타일랜드에 16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해 왔고 군부 내의 극우파 일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오래 전부터 타일랜드 국민들은 CIA가 그들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3월 20일 쿠크리트 수상은 미국과의 통신기지 협정을 파기하고 고문단을 제외한 미군 시설의 완전 철수를 통고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학생 1만여 명이 다음날 미대사관 앞에서 反帝·反美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우익측의 폭탄 테러로 3명이 죽고 8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공산주의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악성 루머가 만발하는 가운데 선거 기간 동안 좌익의 주요 지도자들을 비롯, 40여 명이 목숨을 잃어 좌익의 손실은 대단한 것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타일랜드 국민당·사회행동당·사회정의당 등 주요 4대 정당에 표가 집중됨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타일랜드의 정당 정치가 발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좌익은 라오스 공산화의 소식과 경기 침체로 동북부 지방의 지지가 대폭 떨어져 의석을 대폭 상실했다. 신세력당·사회주의자당 등 좌익의 와해는 이후 타일랜드의 정치세력 균형

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미군철수를 강행해 온 쿠크리트의 낙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선거 결과는 타일랜드 국민의 우파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내었고 군부 실력자들에게는 막강한 정치적 발판을 구축해 준 것이었다.

76년 4월 30일 쉐니를 수상으로 민주당·타일랜드 국민당·사회정의당·사회국가당 등 4당의 보수 중도 연립내각이 발족하였다. 쉐니는 주요 부처를 민주당에 배정하고 군출신 각료는 되도록 보건·실업·농업상 등 중요성이 덜한 부서로 배정하였다. 그러나 국방상으로 내정된 크리트 장군의 갑작스런 죽음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73년 10월 혁명 당시 군의 발포를 중지시키고 산야 잠정 내각 하에서는 군의 정치 개입을 저지함으로써 학생과 국민은 물론 군부 각파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 그의 의문의 죽음은 좌파 학생들과 군부의 충돌을 완충시켜줄 최후의 인물이 사라졌다는 데서 타일랜드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쉐니 정부는 농촌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과 토지개혁 방안 등 전임 쿠크리트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군 철수 방침 등 대외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여 라오스·베트남 등과의 국교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보수파와 군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7월 25일까지 고문단 이외의 전 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공 우파 및 군부의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공산 게릴라의 활동이 격화되고 있었다.

1942년에 결성된 이래로 60년대 들어서면서 무장투쟁을 선언한 타일랜드 공산당은 쉐니 정권을 보수 반동으로 규정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였다. 6월 11일에는 중북부 산림 지방에서 정부 공군

비행기가 공산 게릴라들에 의해 격추되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남부 지방에서도 회교도 주민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정부군과 회교 게릴라 간에 충돌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7월 29일 쉐니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독직(瀆職)방지 위원회설치 법안'이 연립 여당 내의 분열로 부결되자 정국 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우익의 초애국적 구호와 책자가 마스크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에 망명 중이던 군사 정권의 前부수상 프라파트가 돌연 귀국하여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를 유발함으로써 바야흐로 군부의 쿠데타를 지연시키는 것은 다만 군 내부의 파당 분열뿐이거나 국왕의 반대뿐일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었다.

(5) 軍事政權의 재등장

타일랜드 전국학생센터(NSCT)가 시위를 통해 '피의 일요일' 학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자 궁지에 몰린 쉐니 내각은 프라파트에게 재추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쉐니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수뇌였던 타놈 前수상 자신이 아버지의 문병을 빙자하여 9월 19일 승려복 차림으로 귀국하였다. 그의 출국을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은 타놈의 출국을 요구하면서 계속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해 반대파에서는 이를 불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대 캠페인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자 사태 수습에 실패한

세니 내각은 9월 23일 총사직하였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5일 세니 제 2차 내각이 성립하였다.

10월 5일에 있었던 타마사트 대학의 항의 집회에서 학생들이 연출한 촌극이 왕실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10월 6일 새벽에는 경찰과 '빨간 들소' 등 우파 그룹과 합세한 국경 경비 경찰군이 출동하여 학생들을 급습했다. '피의 수요일'로 불리는 이날의 습격에서는 불과 수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2백여 명이 다쳤으며 3,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잔학한 공격에는 예외 기술학교 학생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군 주류파는 상가드 국방상이 의장으로 되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 상가드는 바로 24시간 전에 세니의 새 내각에서 국방상으로 취임되어 선서를 하였던 것이다. 방콕 시내를 순식간에 군대의 점령지로 바뀌었으며 불온서적 색출을 위한 가택 수색이 일제히 행해져 수백만 권의 책이 압수되었고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중지되었다. 세니 수상 자신도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졌고 헌법은 정지되었으며 정당 활동은 일체 금지되었다. 민주화에 관계된 지식인·학생·노동운동 지도자 등 체포자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새 군사정권은 타마사트 대학의 좌파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무기를 입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희생자들 중 일부가 베트남 학생인 것으로 미루어 국외 세력의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하였다.

(6) 쿠데타의 연속

새 군사정권은 1976년 10월 22일 잠정 헌법을 발표하고 이어서 타닌 내각이 성립하였다. 신내각은 세니 정부가 지나치게 공산주의 국가와 접근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친미적 태도를 밝히는 등 반공 자세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타닌 내각의 성급한 반공 정책과 강권적 자세는 행정 혼란을 야기하고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비등하였으며 77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발 쿠데타가 있었다. 특히 9월 22일 국왕 부처 암살 미수 사건으로 우익으로부터 타닌 내각의 무능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었다. 타일랜드에서 국왕의 존재는 실권을 쥐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국권의 정통성의 상징으로서 半神聖視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공 정책에 관한 타닌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있던 군부는 10월 20일 무혈 쿠데타에 성공하였고 상가드 국방상을 의장으로 하는 혁명단이 전권을 장악하였다. 11월 11일 크리앙사크 최고사령관이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실 군사정권이 성립되었다. 크리앙사크 정권은 타닌의 반공 강경 노선을 완화하였다. 78년 9월 15일 군사 재판에서는 '피의 수요일'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은사(恩赦)를 내려 석방하는 한편 밀림으로 잠입한 반정부 학생들에게 대하여서도 조속한 귀환을 호소하였다. 79년 4월 22일 총선을 실시하고 형식적인 민정 이양을 마친 크리앙사크정권은 80년 2월 경제 운영의 실패로 크리앙사크가 사임, 프렘 내각이 들어섰다.

한편 76년 10월 쿠데타 이후 민주화 투쟁을 좌절당한 진보파

학생 약 2,000여 명은 밀림지대로 잠입, 타일랜드 공산당과 합류하였으며 사회주의자당을 비롯한 지식인,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 지도자들도 이들과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77년 9월 '애국 민족 협조위원회'를 결성하여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10월 밀림을 빠져나와서 현정부에 투항한 前 NSCT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공산당과 이에 합류한 학생·지식인 그룹과의 관계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일랜드는 81년 4월 사회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군 일부에서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 3일간의 교전이 있었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쿠데타는 1932년 입헌군주제 이후 14번째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³¹⁾

새니 민간 내각 붕괴 이후 연속되는 쿠데타는 타일랜드 사회의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타일랜드 군부 내에 만연된 야심적 기회주의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 31) Newsweek, (1981.4.13), P.42.

6 맺 는 말

이상에서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타일랜드 등 네 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민주화 경험의 과정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들 네 나라에서는 경직된 구체제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진보적 세력과 안정된 기득권의 확보에 연연하는 보수적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무정부적 혼란을 상호 견제하고 과도기의 지루한 논쟁을 끈기있게 견디어냄으로써 상호 세력균형과 조화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검은 해방군으로부터 혁명의 에너지를 얻은 포르투갈, 7년간의 군사 독재 하에서도 민주화의 저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그리스, 40년의 강권적 정치 풍토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스페인, 그들의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욱 강고히 다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수 역진 세력에 의해 좌절당해야 했던 타일랜드의 경우야말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깊이 음미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제3세계 민족들이 민중의 경제적 자치와 정치적 자치로서의 민주주의를 다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굶주린 민중에게 더 많은 빵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그리스 -

- 1) Clogg, Richard, *A Short History of Modern Gree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 2) Bell, J. Bowyer, *Violence at a Distance: Greece & the Cyprus Crisis* (Orbis Book 18권, 1974), pp.792-793
- 3) Brown, James William, "Greece: Obsessed with Junta", *The Nation* (1976.3.20), pp.334-336.
- 4) Euriviades, Marios, "A New Era in Greece", *Current History* (1981.5), pp.218-232.
- 5) "The Voters Choose Caramanlis", *Time*(1974.12.2), pp.16-17.
- 6) "Greece: Blackness of Spirit", *Newsweek* (1974.7.22), p.19.
- 7) Mitgang, Herbert, "Looking for Anestis: All Greeks were Heros", *The Nation* (1978.8.5-8.12), pp.108-111.
- 8) Horgan, Jim, "The Illusion of Stability", *The Nation* (1973.3.12), pp.329-334.
- 9) Kitsikis, Dimitri, "Greek Communists & the Karamanlis Government", *Problems of Communism* (1977.1-2월호), pp.42-56.
- 10) Lambropovlos, P., "Cyprus, NATO, & the Greek Future", *The Nation* (1974.9.28), pp.267-269.
- 11) 木戸 蒼, "키프로스紛爭とギリシヤ의民政移管", 『國際年報』(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4)

- 1) Abshire, D.M. & Samvels, M.A. eds., *Portuguese Africa* (London: 1969)
- 2) Crollen, Luc, *Portugal, the U.S. & NATO* (Leven: 1973)
- 3) Maxwell, Kenneth, "The Thorn of the Portuguese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5, No.2 (1976, 1월호)
- 4) *Le Monde Diplomatique*, No.242 (1974.5)
- 5) *Le Monde Diplomatique*, No.244 (1974.6)
- 6) Blackburn, Robin, "The Test in Portugal", *New Left Review*, No.87-88. (1974.9-10월호)
- 7) 스피노라 著, 金七紀男 譯, 『포르투갈과 그의 미래』(時事通信社, 1975)
- 8) Harvey, Robert, *Portugal: Birth of a Democracy* (St. Martin's Press, 1978)
- 9) Antonis de Figueiredo, *Portugal & its Empire* (London: Victor Gallarey, 1974)
- 10) Figueiredo, Antonis de, *His Portugal*
- 11) Figueiredo, Antonis de, *Fifty Years of Dictatorship* (Penguin-pelican, 1975)
- 12) Rodrigues, Paulo Madeira, *Suddenly in April* (1974)
- 13) Cochran, Bert, "A Most Peculiar Revolution", *The Nation* (1975.10.4), pp.294-298.
- 14) Bouscaren, Anthony Trawick, "The Portuguese Labyrinth", *Current History* (1981.5), pp.205-225.
- 15) Figueiredo, Antonis de, "Portugal: A Country for Historians", *The Nation* (1974.5.18), pp.615-617.

- 16) Figueiredo, Antonis de, "Portugal: The Revolution is Now", *The Nation* (1975.5.24), pp.617-619
- 17) Szulc, Tad, "Lisbon & Washington", *Foreign Policy* (1975, 76 겨울호)
- 18) 타도·슈울츠, "리스본과 워싱턴", 『世界通報』(1976년 1월 26일~2월 24일, 5회 연재)
- 19) Talbot, Stephen, "What happened to the Captains of April", *The Nation* (1980.3.8), pp.272-273.
- 20) *Newsweek*, "The Reign in Lisbon", (1974.7.22) pp.17-18.
- 21) Figueiredo, Antonis de, "Portugal's Three Maria", *The Nation* (1974.3.2), pp.268-269
- 22) Hottinger, Arnold, "The Rise of Portugal's Communists", *Problems of Communism* (1975.1-2), p.1-17.
- 23) 金七紀男, "포르투갈군부크데타", 『國際年報』(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4)

- 1) Coverdale, John F.,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Spain after Franco* (New York: Praeger, 1979)
- 2) Payne, Stanley G.,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Spain", *Current History* (1977.11)
- 3) Payne, Stanley G., "Terrorism & Democratic Stability in Spain", *Current History* (1979.11)
- 4) Meisler, Stanley, "The Popular Arts in Spain:

- after Franco's forty years", *The Nation* (1977.4.16), pp.461-464.
- 5) Cadden, Virian, "Reunion of the Spanish Brigade", *The Nation* (1976.12.4), pp.594-596.
 - 6) Meisler, Stanley, "Spain in Mexico: Still Royal to the Royalists", *The Nation* (1975.11.15) pp.495-497.
 - 7) Watson, William Broasch, "The Last Days of Franco", *The Nation* (1975.11.1), pp.430-434.
 - 8) Rosenthal, David, "Spanish Prisoner: An Interview", *The Nation* (1975.9.20), pp.233-235.
 - 9) Preston, Paul, "Guerinica Lives", *The Nation* (1975.7.19), pp.45-51.
 - 10) Mujal-Leon, Eusebio M., "Spanish Communism in the 1970's", *Problems of Communism* (1975.3-4), pp.43-55.
 - 11) Vayo, Alvarez del, "Spain at the Flash Point", *The Nation* (1975.1.25), pp.73-74.
 - 12) Preston, Paul, "Post Franco Spain: The Tension Mounts", *The Nation* (1974.8.17), pp.110-113.
 - 13) Preston, Paul, "The Communist Party of Spain", *The Nation* (1975.12.13), pp.618-622.
 - 14) Reed, David, "A King's Struggle for Democracy", *Reader's Digest* (1979.6), pp.24-28.
 - 15) Watson, William B., "Spain & Washington: The Unconstitutional Alliance", *The Nation* (1975.11.15), pp.491-492.
 - 16) 有賀忍, "民主化に苦惱するスペイン", 『世界通報』(1976.2.17) pp.16~19.

- 17) Koepfel, Barbara, "Spain Returns to the Ballot Box", *The Nation* (1977.2.5), pp.135-138.
- 18) Meister, Stanley "How Democratic is Spain?: The Mime troupe Tests the Regime", *The Nation* (1978.6.17), pp.724-727.
- 19) "Franco's Death: The Challenge", *The Nation* (1975.12.6), pp.581-582.
- 20) Serbaty, Meir, "Spanish Democracy: The End of the Transition", *Current History* (1981.5), pp.213-228.

- 라일랜드 -

- 1) Heinze, Ruth Inge, "Ten days in October-Students vs. Military: An Account of the Student Uprising in Thailand", *Asian Survey* (1974.6)
- 2) Zimmerman, Robert F., "Student Revolution in Thailand: The End of the Thai Bureaucratic Party?", *Asian Survey* (1974.6)
- 3) Kroef, Justic M. Van der, "Thailand after Thanom", *Asian Affairs* (1974.1-2)
- 4) Race, Jeffrey, "The January 1975 Thai Election: Preliminary Data & Inferences", *Asian Survey* (1975.4)
- 5) Zimmermann, Robert F., "Thailand 1975: Transition to Constitutional Democracy Continues", *Asian Survey* (1976.2)
- 6) Morell, David,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Asian Affairs* (1976.1-2).

- 7) Darling, Frank C., "Rural Insurgencies in Thailand: A Comparative Analysis", *Spectrum* (1975.4)
- 8) Kroef, Justus M. Van der, "Guerrilla Communism & Counterinsurgency in Thailand", *Orbis* (1974. Spring)
- 9) Alpern, Stephen I., "Insurgency in Northeast Thailand: A New Cause for Alarm", *Asian Survey* (1975.8).
- 10) Mezey, Michael L., "The 1971 Coup in Thailand: Understanding why the Legislature fails", *Asian Survey* (1973.3).
- 11) Nuechterlein, Donald E., *Thailand & the Struggle for Southeast Asian*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5)
- 12) Wilson, David A., *The United States & the Future of Thailan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 13) Darling, Frank C., *Thailand &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65).
- 14) Darling, Frank C., *Thailand: The Modern Kingdom* (Singapore: Asia Pacific Press, 1971).
- 15) Anderson, Ben, "Withdrawal Symptoms: Social &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9, No.3 (1977.7-9).
- 16) Diamond, Larry. "Democracy's Race against Time", *The Nation* (1975.5.10), pp.558-562.

- 17) Wasserman, Harvey, "Thailand on the Tide of Reaction", *The Nation* (1976.10.30). pp.432-434
- 18) Darling, Frank C., "Thailand: Return to Military Rule", *Current History* (1976.12), pp.197-230.
- 19) Wasserman, Harvey, "Thailand: Awaiting the Explosion", *The Nation* (1976.3.27), pp.363-365.
- 20) 田中忠治, "タイ10月學生革命-軍事政權の崩壊", 『國際年報』(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3)
- 21) Kelly, Neil, "Bankok & the Insurgents", *The Nation* (1975.12.20), pp.649-651.
- 22) Paul, Anthony M., "Mr. the Greatest: Thailand's Remarkable Monarch", *Reader's Digest* (1974.12), pp.17-22.
- 23) Paul, Anthony M., "Thailand: The Domino that Need not Fall", *Reader's Digest* (1978.4), pp.22-27.
- 24) Zimmermann, Robert F., "Insurgency in Thailand", *Problems of Communism* (1973), pp.18-39.
- 25) Tusa, John, "Thailand after the Vietnam Cease-fire", *Asian Affairs* (1975), pp.280-286.